



대학교수의 역할과 자질

신재철 | 전남대학교육학과 교수

I. 서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학교수가 경제적인 소득이나 권력의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사회적 존경의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여 왔다. 즉, 우리 사회는 대학교수라는 직업에 대하여 남의 존경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은 심리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첫째 원인은 사회와 대학의 급속한 변화에 기인한다. 사회는 이제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라 일컬어지며 대학은 다원다기능 대학(multiversity)으로 변모되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는 육체노동보다는 지식의 생산, 처리, 유통 등 지식노동에 더 가치를 두는 사회이며, 우리의 행동, 사고, 가치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모두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수명은 매우 짧기 때

문에 지식인으로서 대학교수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학문 연구에 쏟아야 한다. 또한 다기능 대학에서 교수들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아졌다. 심지어는 교수가 신입생들을 모집하러 다니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기업체에 부탁하러 다니는 경우도 생겼다. 둘째, 정부가 사회 및 교육정책에 시장경제, 즉 경쟁논리를 적용한 데에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교수성과급제, 교수계약임용제, 교수연봉제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모든 교수들을 잠재적 쓰레기로 전제하는 이러한 제도들은”(김인회, 1999: 44), 교수들을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든다. 셋째, 오늘날 교수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의 당 학생수의 과다, 학생의 다양한 배경으로 인한 지도의 곤란성, 사회의 교수에 대한 사회봉사 요구의 증가 등은 교수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면 대학교수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는가?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인가? 이하의 글에서는

* 『種의 기원』에서 찰스 다윈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종족은 가장 강한 종족도 아니고, 가장 지적인 종족도 아닌. 환경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족이다”고 갈파하였듯이, 오늘날의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환경에 우리나라의 대학이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이번 5·6월호부터 연속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 하에 먼저 대학교육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담는다. - 편집실 -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교수의 역할

본래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모여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는 초기 대학의 기능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뿐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수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르칠 내용을 연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본래 기능은 '교육과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은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는 연구활동과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전파하는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기능은 대학의 역사상 초기에는 대학 내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불렸다. 즉, 전통적으로 대학은 폐쇄체제로서 사회와 단절된 채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대학은 상아탑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이 대학 내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축적한 교육과 연구의 결과물들에 대한 외부(사회)의 접근 요구를 수용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도 교육과 연구의 결과물들을 사회에 공표하고 전파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또한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은 대학이 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였다. 대학은 자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서도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대학과 사회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대학은 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능도 추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산업기술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기능 외에도 사회정책을 연구 또는 개발하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자극하고 촉진하는 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대학은 과학과 기술 및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창조적 활동으로서 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대학은 산업기술의 혁신을 위한 자문과 지도, 현직인의 직무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의 문제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봉사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재철, 1990: 79). 이러한 대학의 기능은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교육자, 학자(학문 연구자), 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하에서는 교수가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봉사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자로서 교수의 역할

교육자로서 교수는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학생들이 대학에 오는 제 1 목적은 대학에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교수라면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즉 교수가 수행해야 할 제 1차적 과업이 수업이라는 것이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교수는 수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미건조한 암기, 지식 위주의 고답적인 강의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는 육체노동보다는
 지식의 생산, 처리, 유통 등 지식노동에 더 가치를 두는 사회이며,
 우리의 행동, 사고, 가치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모두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수명은 매우 짧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 대학교수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학문연구에 쏟아야 한다.

”

동기를 고사시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는 성적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활동은 단순히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 즉 학생들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수업을 얼마나 잘 지도했는지 등을 평가 결과를 통하여 반성(feedback)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 중 교육 내용 선정과 교수 방법에 관하여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주된 내용은 '학습하는 방법', 즉 학생들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거나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법, 이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교수 주도의 수업에서 학생 주도의 학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수업에 있어서 교수보다는 학생이 주체가 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학생 주도의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배워야 하며,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정한 기준이나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고 학생들에게도 이를 활용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수업에서 학생의 역할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 될 것이고, 학생의 창의력·판단력·결정력 등은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교수 활동에서 벗어나 고도의 학습정보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자, 개별집단 학습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신재철, 2000: 19). 이러한 역할들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호기심 또는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적극적으로 먹을 음식을 찾듯이 지적 호기심이 강하면 공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육자로서 교수는 대학원 학생의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도 해야 한다. 논문지도도 교육이므로 지도 학생의 논문을 읽고 논문의 방향, 연구 방법, 논문 체제, 문장의 표현과 논리 전개, 문법 또는 띄어쓰기, 심지어는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자제

까지도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수는 논문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용하는 데 능률적인 방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끝으로, 교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생들도 사회의 한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인이라면 가질 수 있는 문제, 즉 건강, 생활 조건, 사회적 행위, 교육 문제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후 자신의 미래, 즉 취업 문제에도 고민이 많다. 대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교수의 이러한 활동은 생활지도 활동과 진로지도 활동이 포함된다.

2. 학자로서 교수의 역할

교수는 학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일과 진리를 전수하는 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학문 연구는 교육을 잘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교수가 항상 학문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학자로서 교수의 역할은 학문 연구 활동과 전문 활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수의 학문 연구 활동에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거나 예술 작품을 창작하며, 정책 연구, 과학적 실험, 현장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실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그리고 논문 또는 저작물을 집필하는 일, 학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학자로서 교수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학문 활동이다.

다음으로, 교수가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공분야의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

로 활동하는 것이다.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학술단체 또는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이제 학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일에 속한다. 이 때문에 교수들은 전문 학술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전문 활동은 교수가 학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필요하게 된 부차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전문 활동에는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을 심사하거나 편집하는 활동, 학술단체 또는 학회에서 회장 또는 각종 위원장 등의 행정을 담당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3. 봉사자로서 교수의 역할

교수는 자신이 획득한 전문지식을 응용하거나 적용하여 대학과 사회에 봉사해 주기를 요구받는다. 교수가 사회현실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대학은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정부나 지역사회의 발전 또한 대학의 기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학과 정부 또는 지역사회는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은 대중을 위한 고등교육의 확대와 정부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교수가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것도 사회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봉사는 교수 자신이 대학이나 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봉사자로서 교수의 역할은 대학봉사(대학 내 봉사)와 사회봉사(대학 밖 봉사)로 구분될 수 있다(백명희, 1992: 12~15). 먼저, 대학봉사는 학장, 처장, 학과장 등 행정 활동 및 각종 위원회 활동, 대학 행정 자문, 교수평의회 활동, 학생 조직 활동 지도,

“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호기심
또는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적극적으로 먹을 음식을 찾듯이
지적 호기심이 강하면 공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

학과간 행정업무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사회봉사에는 타 대학에 대한 평가활동 참여, 지역사회와 정부에 대한 공공봉사로 공무원임용고시 출제, 정부 각종 위원회 활동,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활동, 기업체 자문활동, 기업과 사회단체 및 전문사회교육기관에 의한 연수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일, 신문, 잡지, 기업사보, 비학술, 비전문 서적의 출판 등 활자매체에 의하여 대중 교육에 참여하는 일, 방송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교육활동, 빈곤, 질병, 노인 문제, 청소년 범죄, 환경 공해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시민운동과 자문활동 등이 포함된다.

III. 교수의 자질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 등을 중핵적인 역할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교수의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어떤 것들인가? 이하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자로서 교수의 자질

교육자로서 교수의 자질은 교사로서의 교수와 상담자로서의 교수의 자질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사로서 교수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는 전문지식과 그와 인접된 타 전문분야의 관련 지식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교

수(teaching)하는 지식이 살아있고 그 의의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면서 그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치려는 의욕이 충만해야 한다. 또한 학생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이대순, 1994: 5).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의 만남은 교수들에게 학생들의 삶에 대한 우주관과 인생관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는 학생과의 만남에서 진선미를 논의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만남에서 교수가 교육적 열의가 없다면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시키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로서 교수는 진선미가 구현되는 가치 세계에 대한 전망과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망과 이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능력과 교육적 열의를 가져야 한다(권영준, 2001: 86). 여기서 교육적 열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지식을 갈구하도록 만드는 노력을 의미한다.

둘째, 더욱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 그리고 상담자로서 교수는 학생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수가 아무리 전문지식과 전달 능력 및 교육적 열의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수를 믿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교육활동의 효과는 훨씬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수의 지도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에 대

한 학생들의 이러한 신뢰성은 전문지식과 논리적 사유는 물론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양심적인 행동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과의 만남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교수가 대학원생의 논문을 지도하는 데에는 시시비비의 비판정신이 필요하다. 교수는 자신의 제자가 훌륭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논리전개의 체계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등을 조목조목 살펴서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비판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만약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지도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정을 앞세워 논문의 오류를 눈감아 준다면 자신의 제자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2. 학자로서 교수의 자질

학자로서 교수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연구 문제의 개념화 능력, 연구설계 능력, 문제 또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 및 논의 능력, 연구보고서 작성 능력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러한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수가 어떤 욕구와 자세로 연구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교수의 자질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교수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자의 윤리성뿐 아니라 연구 수행에 가장 중요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생명인 창의성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Kelman은 교수들이 연구활동을 하게 되는 동기 또는 욕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이성호, 1985; 18~20, 재인용).

먼저, 생리·경제적 욕구(physio-economic needs)에 기초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수준의 욕구에 기초한 연구는 외부의 통제적 기제에 순응하기 위한 연구활동과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연구활동으로 나뉜다. 외부의 통제에 의한 연구는, 예를 들면, 승진·계약변경 등 행정적 규제책의 하나인 교수로서 연구업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무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연구활동은, 예를 들면, 연구비와 연구 결과의 출판을 통한 수입이나 특허 등의 수입을 얻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에 기초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경쟁적 학술사회에서 연구 결과의 출판을 통하여 위신과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둔다. 마지막으로, 교수 자신의 자아욕구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명성 등과 같은 외면적 보상보다는 지적 탐구를 통해 얻게 되는 희열과 같은 내면적 보상, 즉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된 진리탐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은 지적 호기심에 기초한 동기의 자발성, 지식의 창출과 전수라는 목적의 순수성, 그리고 전문적 활동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근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세 번째 욕구에 기초한 연구활동, 즉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된 진리탐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연구활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처음 두 가지의 욕구에 기초한 연구활동이 그릇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의 경우도 교수의 학문 연구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들이 교수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일 때 교수로서 본분이나 학생의 교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

“

교수의 역할은 대학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교육, 연구, 봉사활동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수의 능력과 자질은
모든 대학교수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며,
교수 자신의 노력 또는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신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핵심은 교수 자신들이 그것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

계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학자로서 교수가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연구수행의 탁월한 능력뿐만 아니라 강한 지적 호기심, 윤리성, 자율성, 독창성, 비판에 대한 개방성 등의 자질이다.

3. 봉사자로서 교수의 자질

오늘날 교수들은 빈부 격차와 지역 간 격차 문제와 갈등, 환경오염 문제 등 지식인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식인으로서 교수들이 사회를 개선하여 정의와 진리가 실현될 수 있는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려는 활동은 장려되어야 하며, 대학에 대한 봉사도 인정해야 한다. 봉사자로서 교수에게 필요한 자질은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꾸준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비판적 참여 정신이다(백명희, 1992: 18). 그리고 대학 내의 봉사를 위해서는 원활한 대학 운영을 위하여 대학행정과 관련된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IV. 결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교수의 역할은 대학의 기

능과 마찬가지로 교육, 연구, 봉사활동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수의 능력과 자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로서 교수는 세계에 대한 전망과 이해력을 갖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지식을 갈구하도록 만들려는 교육적 열의와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양심적인 행동을 표출해야 한다. 둘째, 학자로서 교수가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연구 수행의 탁월한 능력뿐만 아니라 강한 지적 호기심, 윤리성, 자율성, 독창성, 비판에 대한 개방성 등의 자질이다. 셋째, 봉사자로서 교수에게 필요한 자질은 관련 인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간관계 기술과, 우리 사회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꾸준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비판적 참여 정신이다.

자질이란 원래 한 개인의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자질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생각될 가능성이 많다. 즉 자질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교육 또는 노력으로 형성하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의 가소성을 전제로 성립한다. 이 말은 설령 자질이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과 노력을 통하여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역할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획득하기 위

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대학교수의 자질은 모든 대학교수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며, 교수 자신의 노력 또는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신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핵심은 교수 자신들이 그것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또한 교수 자신이 세 가지 중 어느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질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대학교수의 본분은 연구와 교육이라고 생각하여 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봉사자로서 역할을 방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교수는 사회의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하는 일이 사회와 개인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은 대학교수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교육자라고 생각하여 교육자로서 역할만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수는 어떤 연구소의 연구원도, 어떤 학원의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역할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수에게 주어진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들 역할들을 조화시켜 수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조화시킨다는 말은 교수의 역할을 수학적으로 삼등분하여 세 가지를 똑같은 비중으로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교수는 대학의 본래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권영준 교수(2001 : 87)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교수가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으나 교육적 열의가 적다면 그 교수는 학자에 머물게 되고, 반면에 교수가 교육적 열의는 대단하지만 전문적 지식이 부족

하다면 그 교수는 선생에 머물게 된다. 훌륭한 학자가 곧바로 훌륭한 교수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훌륭한 선생이 곧바로 훌륭한 교수라고도 할 수 없다. 학자로서의 능력이나 선생으로서의 능력은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건일 따름이다.」

〈참고 문헌〉

- 권영준(2001). "대학, 교수와 학생의 자화상". 『대학교육』 통권 제 111호, pp. 86~89.
- 김인회(1999). "교수계약임용제의 문제와 과제". 『대학교육』 통권 제 99호, pp. 40~45.
- 백명희(1992). "대학교수의 사회봉사 활동 : 1992년도 대학교수개발 세미나"(워크숍 자료 92-3-37).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재철(1990). "대학관리운영의 전문화". 『용봉논총』 제 19집. 광주 :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79~92.
- 신재철(2000).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기능". 지식사회에 있어서 대학교육체제 모형 : 2000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서울 : 한국교육행정학회, pp. 3~26.
- 이대순(1994). "교수의 위상과 역할 : 1994년도 대학교수 워크숍"(워크숍 자료 94-1-51).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이성호(1985). "대학교수 연구활동의 특성과 문제점". 『대학교육』 통권 제 16호, pp. 18~25.

신재철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광주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교육제도론』(공저),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공저)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교원교육과 교육학 교육", "한국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통일 후 교원양성 및 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